



남원시, 복지 안전협의체 발대식

남원시는 1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안전협의체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와 같은 복지·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시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촉된 위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 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안전협의체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계농협, 한부모가정 주변환경 개선 나서

장계농협(조합장 박정용)은 농가주부모임홍사당(회장 전계자)과 함께 장계면 오동리 한부모가정의 정리수납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암)을 앓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주방, 의류 정리 및 집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집물체거 및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실시했다. 전계자 회장(홍사당)은 "어린 두팔과 함께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늘사랑 봉사회, 임실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늘사랑 봉사회(회장 김수연)가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을 임실군에 기탁했다. 늘사랑 봉사회는 17년 전인 2008년에 오수면 삼계면, 지사면 주민 48명이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창립했으며, 지금까지 초·중·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수연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17년 동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늘사랑 봉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기전대, 장수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참여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9일 장수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mbti진단검사 및 1:1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 사회적경제 이카데미 부스뿐만 아니라 면접메이크업,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스트레스검사, 취업타로상담, 목공예 체험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채용면접에 참그린푸드, 이미쿠루, 덕성산업, 밀알노인복지센터, 신진에스엠, 천본, 백세동안요양원, 효사랑복지센터 등 8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구직자들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김기두 기자

전북대 대학원생들, 국제학회서 '두각'

유자미·양일 박사과정생, 유형영 석사과정생 등 최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3명의 대학원생들이 최근 일본 후카이도 삿포로 시에서 열린 '2023 ASBDA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상자는 디자인제조공학과 유자미·양일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조동민)과 산업디자인학과 유형영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조광수) 등이다. 먼저 유자미 박사과정생은 '몰입이론에 기반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APP 디자인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양일 박사과정생은 '게임의 가상상품 소비 마케팅에 관한 연구: 게임 동인성과 몰입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유형영 석사과정생은 '제미요소 관점에서 본 문화상품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은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격려 덕분에 이번 국제 학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는 3편의 최우수논문상 수상 외에도 18편의 논문을 발표



표했다. 조동민 산업디자인학과장은 "대학원생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디자인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광수 예술대학(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은 "전북대학교의 위상과 세계화를 위해 연구와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익산시는 19일 익산삼계체육관에서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제 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지회장 류정현)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홍은 익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1,200여명이 참석했다. 무왕의 혼 예술단의 난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하 등으로 1부 기념행사를 마친 후 2부에는 운동경기 및 흥겨운 공연 및 기념품 추첨으로 기념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이날 노인복지유공 표창은 익산시장장, 국회의원상에 31명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3명에게 익산경찰서장의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10곳의 모범경로당에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상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익산=이재춘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활성화 직무역량 강화

남원시는 19일 오후 5시, 시 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활성화'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및 사례관리 품질향상을 위해 매일 추진하는 교육으로 올해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교육은 초기상담과정 및 기록, 서비스 연계·접수방법, 통합사례회의의 절차 등 사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시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개인 중인 자기 방임 노출 독거노인 사례 발표 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와 동료 공무원들이 수퍼비전을 제시했다. 매일 교육에 참석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례를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교육이며,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보건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는 지난 18일 부안군 스포츠타고 실내체육관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현기 부안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지회 임원 및 관내 어르신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잔치마당으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앙양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로 평소 회생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 노인(부안읍 김구암리 외 12명) 및 노인복지 기여자(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김희영 외 2명), 모범봉사상(부안읍 이춘길 외 12명), 효행상(부안읍 박성안 외 1명), 감사패(부안농업협동조합 김일철 외 2명) 등 3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성태 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에서 어르신 복지실현을 위해 앞장서며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효행 실천의 공로로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어르신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으며 부안군이 편안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부안을 만드는 일을 중점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다양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익산시의회, '런던 뉴몰든 한인축제' 성공 개최 기여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3년 제1회 런던 뉴몰든 한인축제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성자)에서 한복과 전통놀이기구 등을 지원하여 현지 한인사회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해왔다. 런던 한인축제는 영국의 한류확산을 위해 런던 최초의 한인 시의원인 로버트 김(Robert Kim) 의원과 영국한인타운봉사단체인 KIT(Korea Town Foundation)가 개최하였으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복 40벌과 장신구, 윗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기구 등을 지원했다. 이번 영국으로 보내진 지원 물품들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한복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신구 등을 기부한 것들이다. 로버트 김 의원은 "영국 사람들에게 한류를 더 많이 알리



기 위해 개최한 이번 한인축제에 익산에서 보내주시는 한복 등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내년 축제에는 익산시도 직접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전주세무서와 협약

전주대학교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지난 18일 경영대학에서 전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심상동 전주세무서장과 임직원 2명, 이경재 경영대학장 및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 참여교수 4명 등 총 40여 명의 커플링 참여 학생 및 회계세무학과 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단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및 전문가 특강을 위한 상호 협력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지원 등이다. 김효진 단장(회계세무학과 교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지역기반의 현장실습 활성화 및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사회복지장학회, 나랑드사이다 시설에 전달

군산시는 19일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가 동아오츠카(주)에서 나랑드 사이다 1.498상자(2,000만원 상당)를 후원받아 사회복지 시설에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군산시 지역기업들이 모여 지역인재양성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장학사업과 소외계층을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단체다. 이번 동아오츠카 후원품은 군산시 지역이동센터를 비롯한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거주시설, 무료급식소 3개소 등에 전달됐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 김기봉 이사장은 "후원을 해주신 동아오츠카에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으로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 시설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기전대, 전공맞춤지원 전공관련 특강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9일 2023학년도 전공맞춤지원 전공관련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초급 간부에게 필요한 전문적 덕목'을 주제로 부사관과 재학생 13명이 참여했다. 부사관과 초빙 강연에서는 특수부대의 특성을 알고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 및 군 간부로서 준비해야 할 자기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다. 군 간부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초급 간부가 우선 해야 할 것, 특수전사령부가 현재 추구하는 간부상 군부대 적응을 위한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다뤘다.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군 간부가 되기 위한 준비 계획을 세우고 현재 상태와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